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일본

양돈장의 오염수 처리에 발포 콘크리트가 효과적

일본 군마현의 축산 실험장에서 양돈장에서 축산오염수 처리시 문제가 되는 인의 농도를 내리는 데에, 건축자재인 발포콘크리트가 효과적인 것을 알아냈다. 오염수에서 질소 제거는 가능하였으나, 이것으로 인의 제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자재는 건물의 외벽재로 이용되는 ALC라고 불리는 발포콘크리트이다. 다공질로 되어있고, 오염수와 접촉시키면, 수질정화에 활용된다. 자재는 규산칼슘으로 오염수 중의 인산분과 접촉하면, 인산칼슘이 되어 붙어, 오염수 중의 인산분을 제거할 수 있다. 축산 실험장은 ALC를 제조하고 있는 자재 메이커와 공동으로 수질정화실험을 했다. ALC로 만든 5센치 정도의 작은 돌과 직경 12센치 정도의 원주를 사용하여 인을 제거하는 능력을 보았다. 또한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 통으로 된 형태의 것도 만들고 있다.

'97년도 4/4분기, 연도 SG 기준수량 돈육 67만 7천톤

일본 대장성은 지난 4월 30일 돈육의 관세긴급조치(SG)에 관한 '96년도 누계(96년 4월~97년 3월)의 수입실적을 공표했는데 이를 근거로 '97년도 4/4분기의 돈육수입 기준량을 일본 식육속보지가 시산하였다.

돈육의 금년 3월 수입실적은 2만 3천 320톤으로 '96년 4월~3월 누계가 66만5천 635톤으로 이미 '96년도 기준량을 초과 4월부터 6월말까지 연

도 SG가 발동중에 있다. '97년도 4/4분기의 수입기준량은 전 3년 평균의 119%로 계산하면은 67만 7천 86톤이 된다. 이는 전년도 SG기준량 대비 8만 3천톤, 수입실적대비 1만 1천톤이 증가하게 된다.

〈표〉돈육관세긴급조치 발동기준수량 및 수입실적

단위 : 톤, %

SG	기준수량	96년도			차이	97년도 기준수량
		년월	수입량	누계		
1/4분기	152,448	96년 4	133,094	373,184	-220,696	254,431
		5	94,261			
		6	145,829			
2/4분기	311,736	7	40,900	471,026	7월부터 발동 -159,284	407,643
		8	28,581			
		9	28,361			
3/4분기	482,268	10	41,923	588,208	발동 -105,940	575,268
		11	31,541			
		12	43,718			
4/4분기	594,000	97년 1	34,254	665,596	발동 -71,596	*677,086
		2	19,814			
		3	23,320			
돈육등SSG	537,199	96년 4~97년 3	665,635	발동	626,576	

*식육속보지 시산

미국

'98년도 돼지고기생산 7% 증가 예상

'98년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은 비교적 높게 계속 유지될 것이며, 사료비용은 하락세, 가변비용 수익률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돈업계의 생산여건이 호전되면 과거같으면 더

높은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업계구조가 수요감소와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축산 노폐물 처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양돈업자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98년도 돼지고기 생산량은 199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가격은 '97년 예상가격보다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증가로 인해 발생할 가격하락 압박은 수출증가, 쇠고기 공급량 감소, 계속되는 개인소득 증가세로 인해 대부분 약세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98년도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주로 덴마크산 갈비 수입량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미국의 캐나다산 돼지 수입량은 '97년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콘벨트 지역의 일부 주들의 통조림 생산능력 증가, 환율 호전, 수입상쇄 관세 0%라는 호조건들이 미국의 캐나다산 돼지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예상된다.

FDA, 반추동물용사료 사용금지 법안 제출

미국 FDA는 반추동물용 동물성 단백질사료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대하여 사실상 포유류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의 사료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작년 영국 정부가 광우병(BSE)과 인간의 뇌관련 질병인 CJD와의 관계를 발표한 이래, FDA는 가축의 검사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반추동물용 사료에 돼지 이외의 모든 포유류에서 생산된 단백질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돼지에서 생산된 단백질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 혈액, 혈액제품, 아교, 음식잔반, 유제품을 포함하여 모두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돼지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실제로 곤란하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포유류 유래의 단백질은 반추동물용 사료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쟁상대는 캐나다와 멕시코

돈육생산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넓은 국토를 소유하고 유효한 토지이용이 가능한점이 유리하다.

현재의 문제점은 사육, 가공처리분야가 공히 소규모이고 국내 돈육 소비가 소, 양고기로 인해 적다. 그만큼 장래 생산확대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구 여러나라도 토지의 광대한 점에서는 러시아, 중국등과 같이 생산효율을 높임으로서 수출확대가 충분히 기대된다. 문제는 업계기반이 연약해서 미개발된 점이다.

EU에서는 불란서와 스페인이 생산,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엇보인다. 양국 공히 사육업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비교적 넓고 환경면에서도 생산확대의 여지가 있다. 단점은 노동비가 높아 생산비가 높고 퇴비, 분뇨처리의 환경규제가 엄격하고 가축 복지 행정이 발전된 점이다. 현재의 미국 이외의 2대수출국인 덴마크, 대만은 공히 토지가 협소해서 생산비 인하에 필요한 규모확대가 곤란함으로 장래 현실적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돼지 수출국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양국을 들 수 있다. 대만은 국내 돈육생산의 30% 이상을 수출, 생산에 대한 수출비가 덴마크의 27%(EU지역의 수출) 미국의 4%를 상회하나 구제역 발생으로 금후 최저 2년간은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만의 대 일본 돈육수출의 성공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품질 수요가 높은 일본에 수출의 90%를 집중한데 있다. 토지의 협소와 사료고에 의한 생산비를 저수송비용으로 고가격 수출이 가능한 일본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만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만은 사료곡물의 대부

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출재개를 한다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확대에 대한 생산비 절감이 어렵고 분뇨처리비용이 환경규제강화로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신동물 운송규정 채택

EU 농업장관들은 5월넷째주에 EU 동물 운송규정(animal transport rules)을 채택했다. EU 농업이사회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동물 운송 규정안이 영국의 기권과 함께 만장일치로 합의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농업장관들은 EU의 미국산 호르몬처리 쇠고기 수입금지정책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결한 WTO의 견해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번에 채택된 동물운송규정에 따르면, EU 지역 내에서 운송되는 동물들은 적어도 8시간 마다 사료와 물공급을 받거나 휴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사료와 물 공급, 동물이 운송매체에 실어지거나 내려질 수 있는 휴식처들이 설치될 것이다. 또한, 새로 마련될 휴식처는 1999년 1월 1일까지는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의사가 운송될 동물들을 운송 목적으로 이송하기 전 확인해야 하고, 휴식처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간은 동물운송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관련된 기록들이 휴식처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EU 동물운송 규정은 EU 지역내에서만 적용되고 지역 외로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축돈이 새로운 동물운송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영국은 이번 EU 동물운송규정 채택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영국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규정채택에 찬성했다. 이들 세 국가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종축돈이 휴식처에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운송매체에서 내려지고 실어지게 되면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정에서 제외시키길 원했었다. 이들은 종축돈들이 물과 사료 공급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유 공간이 있는 운송매체를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굳이 8시간 마다 휴식처에서 운송매체로부터 내려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덴마크 '97년도 양돈수익 증가 예상

최근 발생한 유럽의 돼지콜레라와 대만에서의 구제역으로 덴마크의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11.80Dkr(덴마크 화폐단위)로 연초 이후 22.9% 급등했다. 4월에만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져 17% 상승했다. 덴마크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4월 초 미국이 EU와의 축산협상이 제대로 타협되지 않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덴마크산 돼지고기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우려 하고 있던 덴마크 양돈업계는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돼지를 약 120만마리를 도축한 데다 독일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EU의 '97년 돼지생산량은 적어도 3%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대만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덴마크 양돈업계도 일본이 조만간 덴마크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락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은 '96년에 일본으로 20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만한 양만큼 다른 곳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가격 수준까지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생산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이 두나라로의 짚을 갖췄을 새끼돼지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의 돼지 무역량 감소는 양국 국경을 넘나

드는 교통량을 줄이게 되어 돼지콜레라가 덴마크로 전염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자 돼지운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오고 있다.

대만 구제역 진정국면으로

일본 농수성은 대만 구제역 발생 증가율이 조금씩 가라 앉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25일 현재 구제역 발생 농가는 6,134호이고, 발병두수는 101만 82두로 되었다. 발생농가의 총 사육두수는 대만 전체 두수의 43%에 해당하는 4백 6십5만3천157두, 그 중에 3백84만6천1백66두가 이미 처분되었다. 일시 급격히 확대된 것과 비교, 분명히 완만한 수준이다. 대만 당국은 6월중으로 전 사양두수에 백신 접종이 끝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농수성은 백신을 접종한 돼지가 전부 세대교체된 후가 아니면, 구제역의 소멸을 검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만이 원하는 돈육가열제품의 수입허가는 일본 농수성이 수입국의 지정공장을 조사한 후 심사한다. 일본으로의 돈육가열제품 수입희망국이 많고, 현재에도 많은 나라가 현지조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만도 언제 조사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조기 해금은 어려운 것 같다.

1997년 사료 생산 예상

1997년 3월의 돼지 구제역 발생은 현재까지 약 1,000만두의 돼지중 380만두를 살처분시킬 정도로 황폐화시켰다.

1997년 총 사료와 양돈사료 생산량은 각각 약 830만톤과 300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계사료는 10%증가한 46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사료는 지난 20년간 처음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1997년 사료곡물 수입량은 1996년의 약 630만톤에서 560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사료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양돈사료	4,200,000	4,200,000	3,000,000
양계사료	4,000,000	4,200,000	4,600,000
기타사료	700,000	700,000	700,000
합 계	8,900,000	9,200,000	8,300,000

캐나다

대일돈육수출 강화

캐나다 돈육수출업체들이 돼지고기 대일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일본의 돼지고기 시장이 구제역 창궐로 대만산 수입이 금지돼 그 공백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고자 각 업체들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JM슈나이더사는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올해에 '96년도 보다 30%정도 확대해 모두 1만 1천톤을 수출한다는 계획하에 마니트바사에 신공장을 건설, 빠른 시일내에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5년후 연간수출규모를 3만톤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메이플 리프푸드 인터내셔널도 돼지고기제품의 대일 수출을 2배 늘려 약 3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일본을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중 하나로 지목,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지난 '96년에 일본의 전체돼지고기 수입중 5.9%를 차지 국별 4위를 차지했다.

